

우발적이고 일회적인 인적용역에 대해서만 기타소득으로 인정됨

Q

1. 기타소득으로 인정가능한 계약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 현재1주일, 1개월, 3개월, 6개월 등 기간이 많습니다.
1년 이내면 모두 기타소득으로 인정가능 한가요?
2. 기타소득 필요경비(%)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 필요경비가 발생하는 경우와 그 경우에따라 발생하는 %가 궁금합니다.
3. 만일, 계약기간이 6개월인 인적용역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을때 문제가 있을까요? 인적용역에 필요경비를 하지않고 신고한 용역의 경우에도 문제가 있나요?

A

1. 우발적이고 일회성인 경우에 한해 기타소득으로 인정되며, 주기적이고 반복적이며 해당 용역을 직업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모두 사업소득입니다.
2. 기타소득의 경우 인적용역에 대해 60%(7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3.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신고대상이며 기타소득은 일정금액이상만 종합소득신고대상이 되므로 당사자의 다른 소득 여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게 되므로 탈세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필요경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소득자가 과다한 세금부담을 지게 되므로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구입관련 신용카드사용액은 공제제외가 원칙이나,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에 한해 일부금액만 소득공제 적용해줌

Q

- 회사 직원에게 자동차를 매각하려고 합니다. 직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했는데, 이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받은 개인(직원)은 연말정산시에 자동차 구매용으로 산 금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내역이 없는 것이 맞는 건가요?
- 만약에 회사에서 개인에게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거나 카드로 결제 받을 수 있다면 그 개인은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더 유리해 지는게 맞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 18년부터 중고차 매입시에도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저희 회사에서 개인에게 현금영수증(카드매출 영수증)을 발행할 경우에는 저희 회사는 중고차 매매업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회사이므로 중고차매매에 의한 소득공제보다는 그냥 일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내역으로 나라에서 인식하는게 맞는건가요?

A

1. 중고자동차매각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개인은 연말정산시 공제받지 못합니다.
2. 개인이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고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결제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용액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시켜 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때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에 한해 적용되며, 구입금액의 10%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사용액등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3. 자동차 구입과 관련된 신용카드내역과 현금영수증 내역은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나, 세법 개정으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 구입시에만 일부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사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 요건이 성립되지 않으면, 일반 현금영수증공제로도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거래아니고 직원에 대한 교육비 대행분은 가지급금 등으로 반영했다가 상계처리함

Q

사외교육업체에 교육위탁을 하게 되었는데 해당 교육에 직원개인부담금이 있어 직원이 1, 회사가 9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회사에서 먼저 10을 교육기관에 지급한 후에 직원이 회사로 1의 금액을 입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10을 지급하는 지급전표 작성 시 회사부담금 9는 교육훈련비로 처리하는데, 직원이 회사로 입금하기로 한 1에 대해서 어떤 계정처리를 해야하나요?
직원급여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은데 가지급금 등의 계정으로 처리해도 상관이 없나요?

A

회사가 먼저 10을 지급하면서 9는 교육훈련비로 처리하고 1은 어떻게 처리한다는 내용이 없는데, 1을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면 직원으로부터 입금되는 때에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하면 됩니다.